

소값 하락에도 소고기값 올라... 유통구조 바꿔야

수소 491만원... 평년대비 10.5%↓ 유통 비용 42% 소비자가 부담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 농가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높은 소고기 가격에 울상을 짓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5일 한우협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산지 큰수소(600kg) 평균 가격은 지난달 491만원으로 평년 대비 10.5%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고기 가격은 한우 등심(1kg 기준) 1등급 가격만 연초 6406원에서 6020원으로 소폭 내렸을 뿐 3등급 가격은 등심과 불고기 모두 연초 대비 올랐다. 이날 광주 지역은 마트 판매가 기

준 한우 등심이 8480원으로 1개월전 7580원과 1년전 7460원에 비해 각각 10%와 12% 오른 가격에 판매됐다. 이러한 상황은 사육마리수는 306만마리로 적정 수준인 260만마리를 넘어섰고, 가격 하락세에 한우 농가들이 서둘러 도축에 나서다 보니 출하물량이 평년 대비 무려 44.4%나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른 품목보다 복잡한 유통단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우산업은 가격연동성이 낮고 가

격변동과 유통마진이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우협회에 따르면 도매가격 1% 하락 때 유통마진은 0.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고기는 일반적으로 수집반출상(우시장 또는 농협)→도축장→1차 가공→2차 가공→도매상(대형유통업체, 대형점용점)→소매상 등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는데 소값 하락 땀 축산 농가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피해를 보는데 유통 관계자들은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유통비용 증가도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다. 출하단계에선 약 2.8%, 도매단계에선 약 1.6%, 소매단계에선 약 37.8%의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스란

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한우 소비자 가격은 42.2%가 유통비용이며 한우고기 가격은 고작 57.8%에 해당 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사료값 인상은 그나마 버티는 축산농가들을 질량에 빠뜨리고 있다. 산지 가격 폭락과 상관 없는 소고기 가격 인상에 소비자는 물론 식당 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주부 김모(41)씨는 "산지 소값은 내렸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식탁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이라 가계에 영향이 크다"고 걱정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4)씨는 "산지 가격이 내렸다

고 해도 우리가 구입할 때의 가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인건비나 불가 상충을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죽을맛"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소고기 가격이 전체 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문제라며 유통 구조의 체질 개선 없이는 농가도 소비자도 만족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우 가격의 비대칭성은 유통 구조 최소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한우 소비 패턴 다양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해결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납입유예 전 보험사 확대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정부가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시스템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인 점을 고려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를 만들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 보험 상품의

계약체결 비용(사입비 중 계약체결 비용 비율)은 2015년까지 일반체결의 50%로 제한한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의 사입비 체계도 효율적으로 바꾼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가운데 설계사에게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해지환급금 수준도 개선한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분할지급 비중을 각각 70%와 100%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 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전 보험사로 확대하고, 실효된 계약은 1회차 보험료 납입을 통해 정상 계약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효된 연금저축 보험을 계약 이전하려면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계약 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눈덩이... 올 첫 1천조원 돌파 전망

저소득·하위 신용자 증가 취득세 감면 2분기 급증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말 963조8000억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가계부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6월 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주택거래량이 급증하며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규모인 469조9000억원이다. 전월 대비 증가폭 5조8000억원은 6년7개월만에 최대치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월 6400호(戶)에서 6월 9000호로 경종 뛰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3조 8000억원 증가한 32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 빚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올해 안에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부진에 따른 생계형 대출도 올해 가계부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간 가계부채 연간 증가액이 50조원 안팎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올해도 40조원 이상의 증가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59조4000억원), 2008년(59조5000억원), 2009년(54조8000억원)에는 가계부채 증가액이 5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47조

6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액이 60조원을 넘는 경우도 지금까지 세 번 있었다. 2006년(62조3000억원)과 2010년(67조3000억원), 2011년(73조원)이다.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는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세를 앞질렀다. 1999~2012년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7.3%,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5.7%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를 기록했다. 김영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 채무자의 부채액 비중이 커졌다"며 "특히 저소득, 하위 신용등급 채무자 비중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전력난 예고속 백화점 절전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정부의 절전 규제에 따라 5일부터 하루 4시간(오전 10~11시, 오후 2~5시) 지하1층 식품매장과 패션스트리트 연결통로 스마트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절전활동에 나섰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7월 주식거래량 11% 증가

거래대금은 19% 늘어

광주·전남 지역의 7월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2013년 7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4억 4000만주로 전달(3억9559만주)보다

11.23% 증가했다. 또 거래대금은 2조4004억원으로 전달의 2조97억원보다 19.44% 늘어났다. 지역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이 2.55%, 거래대금이 1.74%로 전달(거래량 2.52%, 거래대금 1.57%)보다 모두 소폭 증가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금호종목,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 | | | | | | |
|-------|-----------------|-------|----------------|------------|---------------|---------|------------------|
| 코스피지수 | 1916.22 (-7.16) | 코스닥지수 | 556.60 (+4.84) | 금리(국고채 3년) | 2.92% (-0.04) | 원·달러 환율 | 1113.80원 (-9.80) |
|-------|-----------------|-------|----------------|------------|---------------|---------|------------------|



'올 뉴 카렌스' 구입 고객에 풍성한 선물

기아자동차가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올 뉴 카렌스' 구입 고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기아차는 8월 한달간 '올 뉴 카렌스 통큰 이벤트'를 열고, 개인 출고 고객에게 그늘막 텐트, LPG 충전소 할인쿠폰, 영화 예매권 등을 증정한다. 구입 고객 전원에게 휴가철에 유용한 콜맨 그늘막 텐트를 제공하며 LPI 모델 구입고객에게는 SK LPG 충전소 할인쿠폰(5000원 할인권 월 2회, 총20회 제공)과 SK LPG 예코 멤버십

카드(SK충전소 이용시 OK캐쉬백 3배 적립, 프로스포츠 동반 1인 무료 관람 및 다수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SK LPG ECO 패키지를, 디젤 모델 구입고객에게는 인터파크 커플 영화 예매 5회 이용권(월 1회 2매, 5개월간)을 증정한다. 여기에 '올 뉴 카렌스' 구입 고객이 현재 국산 소형 미니밴이나 소형·준중형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가격 할인을 통해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아차 누리집(www.ki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